

# 광부 떠난 탄광촌

# 문화 캐는 예술촌 변신



과거 공업지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독일 에센의 졸페라인광산 전경. 10여 개의 거대한 굴뚝이 주변의 녹색공간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 디자인·레저·문화 복합공간 독일 졸페라인을 가다

에센=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자동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1시간 정도 달린 끝에 에센(Essen)이라는 도시에 닿았다. 지금의 독일을 이끈 '라인강의 기적'의 시발지다. 입구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거대한 철골구조물이 눈에 띄었다. 60~70년대의 흑백 영상이나 사진에서 본 듯한 검붉은 색의 권양탑이었다. 어찌나 스케일이 압도적인지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쳐다봐야 했다.

그뿐인가. 시선을 옆으로 돌리니 높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개의 대형 굴뚝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다. 그 아래에는 석탄을 퍼나르는 데 사용했던 대형 도르래와 지하수직갱도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비로소 이곳이 어디인지 실감났다. 붙여진 탄광촌에서 디자인(레드닷 박물관),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변신한 졸페라인(Zollverein Coal Mine Industrial Complex·이하 졸페라인)이다.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2010년 에센이 '유럽의 문화수도'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졸페라인을 둘러보기 위해 '샤프트 12'의 24m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말로 '축'을 뜻하는 샤프트(Shaft)는 지하로 뚫린 탄광의 갱도를 지칭한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가장 높고 큰 건물이 '샤프트 12'다. 1932년 문을 연 샤프트 12는 건축가 프리츠 슈프와 마르틴 크레머가 설계한 바우하우스 양식의 모던 스타일이다. 급경사의 오렌지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니 '24m'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지하석탄을 캔 뒤 세척해 외부로 보내기 위해 지은 이 건물은 일반적인 빌딩처럼 층으로 표기하지 않고 지표면을 중심으로 높이를 나타낸다. 예전의 탄광시설을 최대한 원형 보존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게 하고 새로운 시설과 공간의 조화를 추구한 건축가의 컨셉에 따른 것이다. 일반 건물 3층 높이의 24m 층에는 안내소와 매표소, 기념품점, 카페, 상설전시실, 주 출입구가 있다.

졸페라인의 메인빌딩인 이곳에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다름 아닌 루르박물관(Ruhr Museum)이다. 에센의 유럽문화수도 선정을 기념해 루르지역의 자연사 및 산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개관했다. 루르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상설전이다. '현재·기억·역사'라는 세 개의 주제로 각각 17m, 12m, 6m층에서 전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시공간이나 구성은 여느 박물관과는 조금 다르다. 깔끔한 화이트큐브의 전시장이 아닌 기존의 산업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100여 년 전의 그 시절로 되돌아간듯한 느낌을 준다. 새로운 전시공간 대신 기존의 세척공장 안에 전시품들을 설치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마치 갱도를 탐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루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전시는 그룹투어와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인기가 많다.

볼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개관했다.

루르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상설전이다. '현재·기억·역사'라는 세 개의 주제로 각각 17m, 12m, 6m층에서 전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시공간이나 구성은 여느 박물관과는 조금 다르다. 깔끔한 화이트큐브의 전시장이 아닌 기존의 산업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100여 년 전의 그 시절로 되돌아간듯한 느낌을 준다. 새로운 전시공간 대신 기존의 세척공장 안에 전시품들을 설치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마치 갱도를 탐험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루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전시는 그룹투어와 학생들의 견학코스로 인기가 많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날에도 10~20명 단위의 학생들이 박물관 도슨트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를 둘러 보는 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박물관은 컨베이어벨트를 연상시키는 철골 유리바스의 에스컬레이터로 관람객들을 실어 나른다. 건물 내부에는 과거 채탄흔적이 묻어나는 시물물들을 접할 수 있고 건물 옥상에 마련된 전망대(24m, 32m)에서는 졸페라인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루르 박물관의 프랭크 케르너(Frank Kerner) 학예사는 "개관 첫해 5만 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이



졸페라인 복합문화단지에서 가장 큰 건물인 '샤프트 12'. 거대한 A자 모양의 권양기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다.

지난해에는 21만 명이 다녀 가는 등 현장학습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박물관을 비롯한 인근의 디자인 및 박물관까지 합하면 연간 졸페라인의 방문객은 2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졸페라인의 화려한 변신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우스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삭막하고 어두운 탄광시설이 복합문화단지로 옷을 갈아입은 건장소의 역사성을 그대로 살리되 세련된 감각의 시설을 외부에 접목시킨 그의 독창적인 디자인 덕분이다. 건물 입구로 올라가는 오렌지색 에스컬레이터와 상설 전시실로 내려가는 강렬한 오렌지색 조명은 졸페라인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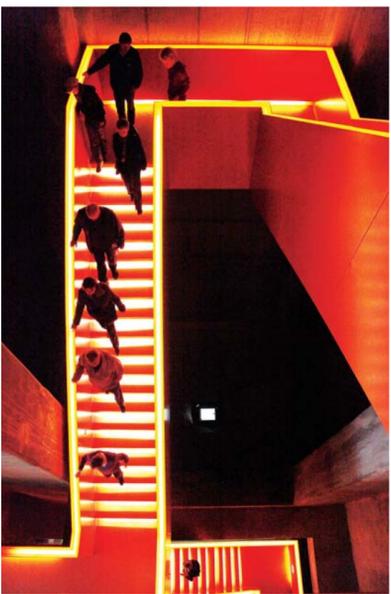
이같은 졸페라인의 기적은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1847년 건설된 에센 졸페라인 탄광은 한때 하루 1만여t의 석탄이 채굴돼 독일 경제의 한축을 맡은 '검은 황금'으로 불리기도 했다. 졸페라인의 석탄이 없었으면 독일의 오늘을 없었다고 할 만큼 산업적인 비중이 컸다.

하지만 석탄이 고갈되면서 이 지역의 탄광도 지난 1986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석탄업에 종사했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경제는 파탄을 맞게 되고 급기야 폐허로 변했다.

죽어가던 탄광지역을 되살린 구원투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였다. 졸페라인이 폐쇄하자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가발회사들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였다. 전체 부지를 매입해 새로운 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주 정부는 눈앞의 이익 보다는 지역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이 곳을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로 재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졸페라인의 산업유산은 독일 경제의 모태일 뿐만 아니라 독일인의 뿌리라는 가치를 내세워 의회를 설득시켰다.

1998년에는 까다로운 심사료 소문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도전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2010년 졸페라인 일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씨가 꺼졌던 보일러 하우스는 유명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손을 거쳐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으로 부활했고 레스토랑, 예술가 스튜디오, 이벤트를, 세라믹 작업장 등이 들어섰다. 이러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주 정부의 열정으로 졸페라인은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불과 30여 년만에 이뤄낸 '제2의 라인강 기적', 에센의 효과다.

jhpark@kwangju.co.kr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우스가 설계한 루르박물관의 계단. 강렬한 오렌지색 조명이 인상적이다.



루르박물관의 상설전시인 '현재·기억·역사'. 탄광촌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는 산업유산이 전시돼 있다.



##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 7월말 · 8월초 정상 영업합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